

演 題 抄 錄

- 1 -

소아 미소변화신증후군 환아에서의 신간질 병변의 의의

경북의대 소아과
권 순 학 · 구 자 훈

병 리 과
학 정 식

소아 미소변화신증후군 환아에서의 신간질 병변의 존재유무에 따라 steroid치료에 반응에 차이가 있으나 치료 개시후 1년뒤에는 그 차이가 소실한다고 1981년 ISKDC에서 보고한바가 있다. 이에 본 조사는 신간질 병변 유무가 병의 치료 및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분명히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환아는 과거 10년간 경북의대 부속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조직검사상 MCNS로 확인된 47예를 취하였으며, 신간질 병변은 광학현미경상 세포침윤 또는 tubular atrophy가 있는 경우로 하였다. 총 47예중 신간질병변은 13예에서 인지되었고 신간질병변 유무에 따른 발병연령, 성별, 유병기간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 steroid치료에의 원해기간 역시 양군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frequent relapser 및 steroid dependent는 병변이 없는 군에서는 34예중 25예 (74%)인데 비해 병변이 있는 군에서는 13예중 4예 (31%)로 낮게 나타났으며, 초기요법 첫8주동안 proteiuria가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initial partial responder는 병변이 없는군에서는 15%인데 비해 병변이 있는 군은 46%로서 높게 나타났다. 면역억제제 (cytoxan 또는 chlorambucil)에의 치료후 6개월간 재발이 없거나 재발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병변이 없는군은 81%인데 비해 병변이 있는 군은 50%로서 낮게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로서 MCNS환아에서의 신간질병변의 존재는 steroid 치료 및 면역억제제 치료에의 반응이

좋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2 -

소아 신증후군에 있어서 신생검의 적응증

경희의대 소아과
조 별 수 · 안 창 일

방 사 선 과
고 영 태

병 리 과
양 문 호

소아 신증후군의 발생빈도는 미소변화형 (MCNS)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미소변화형의 소견, 즉 1세부터 6세까지의 연령층에 속하고, 고혈압이 없으며 혈청 보체치가 정상이고,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정상이며, 혈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미소변화형일 것이라는 추정하에 신생검을 시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되지만,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신생검을 시행하여 병리조직학적인 진단을 내려야 한다. 소아에서는 신생검 수기상에 문제가 많으므로 소아 신증후군에 신생검의 적응증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980년 7월부터 1987년 3월까지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소아과에 신질환으로 입원하여 신생검을 받았던 134례중 ISKDC의 신증후군 정의에 합당했던 환아 65례에 대하여, 신생검의 적응증과 병리조직학적 진단과의 연관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신생검은 전례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경피적으로 시행하였다.

1) 대상 환아의 성별비는 남아 51례 여아 14례였고, 병리조직학적으로는 MCNS 30례 (46.2%), FGS 11례 (16.9%), IgM Nephropathy 10례 (15.4%), MGN 4례 (6.2%), MPGN 3례 (4.6%), Mes PGN 3례 (4.6%), IgA Nephropathy 3례 (4.6%), Lupus Nephritis 1례 (1.5%) 순이었다.

2) 빈회재발(頻回再發)이 신생검의 적응증이었던 20례중 14례(70%)에서 MCNS가 아니었다.

3) 연령이 신생검의 적응증이었던 47례중 육안적 혈뇨를 동반하였던 3례, 고혈압을 동반하였던 3례는 모두 MCNS가 아니었으며,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하였던 16례중 8례(50%), 빈회재발을 동반하였던 15례중 11례(73%)는 MCNS가 아니었다. 그러나 연령이외의 다른 적응증을 동반하지 않았던 12례중 11례(92%)가 MCNS였고, 나머지 1례는 IgM Nephropathy였지만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보였다.

4) 혈뇨가 신생검의 적응증이었던 32례중 육안적 혈뇨인 경우가 7례 였으나 모두 MCNS가 아니었으며, 현미경적 혈뇨를 보였던 25례중 13례(52%)는 MCNS가 아니었다.

5) HBsAg 양성인 신생검의 적응증이었던 10례중 7례(70%)는 MCNS가 아니었다.

소아 신증후군의 신생검 적응증 중 육안적 혈뇨를 보이는 경우는 100%, 빈회재발을 보이는 경우는 70%, HBsAg 양성인 경우는 70%, 현미경적 혈뇨를 보이는 경우는 52%에서 MCNS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신생검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다른 적응증을 동반하지 않고 단순히 발병연령이 늦은 것은 신생검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 3 -

원발성 신증후군 환자에서의 임상·병리학적 고찰

서울의대 소아과
정해일·최 용·고광욱

병 리 과
이 현 순·김 용 일

원발성 신증후군 소아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적 점근의 하나는 신조직 소견상 미세병변(MCL)과 그 이외의 병변을 구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치료방침의 결정 및 예후판정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연자들은 신생검으로 병리조직학적 소견이 확인된 원발성 신증후군 환자들에서 병리소견의 차이에 따른 임상소견의 차이를 비교하여, 임상소견을 가지고 병

리소견을 예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고찰을 시행하였다.

대상환아는 1975년 6월부터 1987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신생검을 시행받은 329명의 원발성 신증후군 환자들로서 이중 MCL이 57.4%로 가장 많았고 소상 분절성 사구체경화증(FSGS)가 21.0%, 중맥증식성 사구체신염(Mes PGN)이 4.9%, 막증식성 사구체신염(MPGN)이 3.3%를 차지하였다.

남녀비는 MPGN을 제외한 모든 병변에서 남아에 호발하였으며 MPGN과 막성 신병(MNP)의 경우 다른 병변에 비해 발병연령이 높았다. 발병시 동반된 혈뇨는 MPGN, MNP, Mes PGN 등에서 매우 빈번하였으며 고혈압은 MPGN, Mes PGN 및 소상 구성 사구체경화증(FSGS)에서, 고질소혈증은 MPGN에서 자주 동반되었다. 단백뇨의 선택성 지수는 MCL과 MNP 이외의 병변에서 불량하였고, 혈청보체 C₃의 감소는 MPGN에서 특징적이었다.

첫 Steroid요법에 대한 반응은 MCL의 약 90%에서 완전관해를 보였으며 Mes PGN의 50%에서도 완전관해를 나타내었지만 나머지 병변에서는 대부분 불량한 반응을 보였다.

추적관찰중 신부전으로의 진행은 MPGN의 경우 가장 예후가 좋지 않았으며 FSGS, FGGS, Mes PGN의 경우에도 상당수에서 신기능의 진행적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

- 4 -

소아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이 임상적 고찰

연세의대 소아과
김병길·이재승·양재승

병 리 과
최 인 준

소아과 영역의 신증중 85% 이상이 미세변화형으로 이들은 대부분 Steroid에 반응을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세의대 소아과에서 과거 8년간 치료받은 168명의 미세변화형 신증 환자의 치료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90%인 151명이 Steroid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였